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

- 박완서의 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중심으로 -

김수정** · 최동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분석 방법
- III.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 IV.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경우
- V. 맺음말

【국문초록】

국어의 주어는 '이/가'나, '은/는', 혹은 다른 보조사가 결합한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조사 없이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이러한 출현 양상을 밝히기 위한 시도로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텍스트에서 처음 출현하는 경우에는 '이/가' 결합 형식과 '은/는' 결합 형식이 모두 상당한 빈도로 나타난다. '은/는' 결합 형식이 많은 것은 세상사적 지식이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시체는 도입 과정 없이 바로 화제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텍스트의 앞에 제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 본 연구의 초고는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2013.4.27. 상명대)에서 발표된 바 있다. 본고는 이후 자료를 재분석하여 대폭 보완하고, 익명의 심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목도 수정한 결과이다. 큰 도움을 준 심사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둘째, 주어 가리키는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출현한 적이 있더라도,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주어는 ‘은/는’ 결합 형식이 현저하게 많다는 점에서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주어 가리키는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된 경우에는 생략되는 빈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일 때에도 생략되지 않고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뒤에 오는 형식은 형태적으로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

넷째, 단락 내의 앞에서 동일한 지시체가 화제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이/가’ 결합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때에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주어가 ‘이/가’ 결합 형식인 표현이 사건제시문의 기능을 갖는 데 기인한다.

주제어 : 담화분석, 주어, 화제, 정보구조, ‘은/는’, ‘이/가’, 생략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을 살피는 데 있다. 국어의 주어는 ‘이/가’(이하 ‘이’)가 결합한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은/는’(이하 ‘는’)이 결합한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는’이 아닌 다른 보조사가 결합한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조사 없이 명사(구)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흔히 생략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형식들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형식으로 바꾸면 의미의 연결이 달라지거나 어색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¹⁾ 이는 이러한 형식들이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 임의적인 현상이 아님을 말해 준다.

주어의 이러한 실현 양상은 문장 문법의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정보구조와²⁾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이 그 동

1) 이러한 사실은 어느 텍스트이든 주어에 쓰인 조사를 바꾸어 보거나 생략해 봄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의 연구에서 세밀한 검토는 물론, 관심의 초점마저 되지 못한 것은, 문장 내의 현상에 국한된 연구가 국어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기 때문으로, 국어의 사용 양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의 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을 자료로 하여³⁾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특정 자료로 제한한 것은, 의미있는 빈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제시된 모든 문장에 대해, 생략된 경우도 포함하여, 주어의 출현 양상을 확인해야 하며, 따라서 분석 대상 자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텍스트이든, 작가의 개인적 특성 및 텍스트의 내용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소설 텍스트의 일반적 특성을 밝힌 것으로 간주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근찬의 ‘수난이대’를 분석하여 비교를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⁴⁾

본 연구가 일부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라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설 텍스트에서 주어의 실현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자료와 보조자료의 양상이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2) 국어의 정보구조에 관해서는 박철우(2003), 최동주(2012) 참고.

3)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1,2,3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소설에 삽입된 대화는 다루지 않았다. 소설 속의 대화는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실제의 대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 본 연구는 장르에 따라 국어 주어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하는 시도의 출발점으로, 본고에서 밝혀진 바가 소설 텍스트의 일반적 양상인지를 비롯하여, 다른 문어 텍스트 및 구어 텍스트에서의 양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동일하였으며, 모두 자연스럽게 읽혀진다는 점에서 작가들의 언어 사용 양상이 일반적 화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분석 방법

주어의 실현 양상은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⁵⁾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경우(즉, 처음 출현한 경우)인가, 아니면 앞에 언급된 적이 있는 경우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텍스트의 앞에, 즉 문장 혹은 절(이하 편의상 ‘문장’이라고 함)⁶⁾ 언급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방법으로 보이기 위해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의 첫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주어로 판단된 부분에 밑줄을 하였음).

(1) ①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②창밖은 가을이다. ③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④창가에 놓인 우단의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⑤그러나 손으로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⑥슬쩍 녹두빛이 돈다. ⑦처음엔 짙은 썩색이었다. ⑧그 의자는 아무쪽에도 쓸모가 없다. ⑨삼십 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⑩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라는 일밖

5) 지시체(referent)는 특정 발화에서 언어 표현에 의해 지칭된 개체(entities)와 상황(states of affairs)을 뜻한다(Lambrecht 1994: 37).

6) 본 연구에서는 이어진 문장의 앞절과 뒷절은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하였으며, 명사절과 관형절, 인용절 등 내포문은 전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외하였다. 이어진 문장의 앞절을 모두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 없다. ①그건 처음부터 거기 있었고 ②처음부터 쓸모가 없었다.

①은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③,④는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이 텍스트에 처음 출현한 명사구인 예로서, ‘는’이 결합한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한편 ⑤는 주어가 생략된 예로서, 생략된 주어는 서사자나 어떤 사람일 것이나 그것이 누구인가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이며, ⑥ 역시 주어가 생략된 예이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우단의자’로서⁷⁾ ④에 나타나므로, 앞 문장에 이미 언급되어 생략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⑦도 주어가 생략된 예인데,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⑥과 마찬가지로 ‘우단의자’로서, 역시 앞 문장에 이미 언급되어 생략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①,⑤,⑥,⑦은 모두 주어가 생략된 예들이나, 그 특성이 다르다. ①은 소설과 같은 텍스트의 수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임), ⑤는 주어를 밝히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다. ⑥,⑦은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가 앞에 이미 언급된 경우로서, 앞에 언급된 지시체가 ④에서처럼 화제인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⁸⁾ 즉, ④에서

7) ⑥의 주어를 ‘녹두빛’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⑥이 ‘우단의자’에 관한 설명이고, ‘그 우단의자는 녹두빛이 돈다’와 같은 표현이 충분히 가능성을 중시하여 ‘우단의자’가 주어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분석자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를 각기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비교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8) 다음은 Lambrecht(1994: 131)에 제시된 화제의 정의이다.

topic: A referent is interpreted as the topic of a proposition if in a given situation the proposition is construed as being about this referent, i.e. as expressing information which is relevant to and which increases the addressee's knowledge of this referent.

화제로 제시된 ‘우단의자’가 ⑥,⑦에서도 화제로 유지되어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

⑧의 주어는 ⑦의 생략된 주어 ‘우단의자’와 같은 대상을 지시하므로, ⑧은 주어의 지시체가 앞 문장의 화제와 일치하는 예로서, ‘는’이 결합한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⑧은 주어의 지시체가 앞에 제시된 화제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⑥,⑦에서와 달리 생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⑨는 주어가 생략된 예로,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가 ‘의자’이고 ⑧에서 화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⑩은 ‘하는 일이라곤’을 주어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그 의자’를 주어로 보고 ⑧의 화제가 유지되어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⑥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자를 택하였다. ⑪은 주어의 지시체가 앞 문장의 화제와 일치하나 ⑧에서처럼 ‘는’ 결합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⑫는 주어가 생략된 예로서,⁹⁾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가 ⑪의 화제와 동일하므로, 동일한 화제가 유지되어 생략된 경우이다.

다음은 (1)에 이어지는 문단이다.

(2) ①53년 봄이니까 ②아직 동란 중이었다. ③휴전설이 나돌면서 ④서울은 단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⑤인구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지만 ⑥정부는 환도하기 전이었다. ⑦그때 나는 만 27세의 처녀의 몸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명제가 어떤 지시체에 대한(about) 것으로 이해될 때, 즉, 그 지시체와 관련되고 그 지시체에 대한 상대방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정보를 표현할 때, 그 지시체는 그 명제의 화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어’는 문장 성분의 하나이며, ‘화제’는 ‘지시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에 ‘는’이 쓰였을 때 그 주어의 지시체는 모두 화제로 간주하며,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도 화제로 간주한다. 화제의 생략에 관해서는 최동주(2012: 42) 참조.

9) ⑧을 고려하여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간주하였다.

겁도 없이 개업하기 위해 단신 서울로 올라와 ⑧마땅한 자리를 물색 중이었다. ⑨나의 지나치게 옛된 얼굴 외에는 개업의로서의 자격은 충분했다. ⑩나는 동란 전에 여의전(女醫專)을 나왔고, ⑪동란 중엔 [부속병원에서 [후송되어 온] 부상병을 돌본] 경험과 피란 가서는 [부부가 지방에서 개업해서 성업 중이다가 남편이 군의관으로 징집당해 찢찢매고 있는] 선배 언니네 병원에 취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⑫지금처럼 전문의 제도가 확립되기 전이었으니까 ⑬그만하면 ⑭개업의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었다. ⑮진료 과목을 뭘로 할까도 내가 차차 정하기 나름이었다.

①은 주어가 생략된 예로서, 생략된 주어는 ‘당시는’ 혹은 ‘그때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② 역시 주어가 생략된 경우인데, 여기의 주어의 지시체는 ①에서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와 동일하므로, 앞 문장에서 (비록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화제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의 주어는 텍스트에 처음 출현한 지시체로서, ‘이’가 결합한 형식으로 실현된 경우이다. ④ 역시 텍스트에 처음 출현한 지시체가 주어인 예이나, ③과 달리 ‘는’이 결합한 형식으로 실현된 경우이다.

⑤의 주어도 텍스트에 처음 출현한 지시체로서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식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는’ 이외의 보조사와 결합한 형식을 ‘NP-X’로 나타내기로 한다. ⑥의 주어 역시 텍스트에 처음 출현한 지시체이나, ‘는’이 결합한 형식인 경우인데, 이때에는 ‘대조’의 의미가 있다.

⑦의 주어의 지시체는 서사자로서, 텍스트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는’이 결합한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⑧의 주어는 지시체가 앞 문장의 화제인 ‘나’와 동일하므로 생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⑨는 ‘개업의로서의 자격은’을 주어로 볼 수도 있고, ⑨를 ‘개업’을 준비할 시점에서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하면(즉 ‘나는’이 생략된,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간주하면),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⑦에서 화제로 제시되어 ⑧,⑨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생략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해석을 취하기로 한다.

⑩은 주어의 지시체가 앞 문장의 화제와 일치하나, ‘는’을 가진 형식으로 실현된 경우이며, ⑪은 주어가 생략된 예로서, 그 지시체가 앞 문장의 화제와 일치하므로 생략된 경우이다. ⑫도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서,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①과 마찬가지로 ‘당시’ 혹은 ‘그때’ 정도일 것이다. 한편 ⑬을 별도의 절로 간주하면 주어가 생략된 예로 간주할 수 있는데, 여기의 생략된 주어는 ‘나의 경력과 경험’ 정도로서 ⑩과 ⑪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지시체가 앞 문장에 언급되어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⑬은, 앞 문장(⑪)에 언급된 바가 그 문장의 화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⑧,⑪과 차이를 보인다.

⑭를 앞의 ⑨처럼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간주하면, ⑭의 주어는 생략된 것이며, 지시체가 ⑪의 생략된 화제와 일치하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⑮의 주어 ‘진료 과목을 밀로 할까도’는 텍스트에 처음 출현한 지시체로, 보조사 ‘도’를 취한 형식으로 실현된 것이다.

(2)에 이어지는 문단을 하나 더 살펴 보기로 한다.

(3) ①환도하기 전이라 ②개업할 만한 자리는 시내 중심가에도 수두룩했다.
③그러나 나는 좀 더 분수를 알고 ④앞을 내다봐야 했다. ⑤[곧 있을 경우 환도와 함께 치솟을 집세와 학위를 가진 이름난 전문의들한테 밀려날] 전망이 뚜렷한 자리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수였다.

①은 주어가 생략된 예로서, 생략된 주어는 앞의 (2)①,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는’ 혹은 ‘그때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지시체가 (2)①,②의 (명

시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화제와 일치하므로 텍스트의 앞에 이미 언급된 경우이나, 단락의 경계가 주어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로 구별하기로 한다. ②의 주어는 텍스트에서 처음 나오는 지시체이다. ③의 ‘나는’은 (2)에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으나, (3)에서는 처음 출현하므로 ①과 마찬가지로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 ④는 주어의 지시체가 ③의 화제와 일치하여 생략된 경우이다. ⑤의 주어는 ‘…… 처음부터 피하는 게’로서, ⑤는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주어의 양상을 범주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

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 주어가 생략된 경우: (1)-①,⑤; (2)-①
- 주어가 출현한 경우: (1)-②,③,④; (2)-③④⑤⑥⑦⑩; (3)-②,⑤

나.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경우

a.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 주어가 생략된 경우: (3)-①
- 주어가 출현한 경우: (3)-③

b.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

- 주어가 생략된 경우: (1)-⑥,⑦,⑨,⑩,⑫; (2)-②,⑧,⑨,⑪,⑫,⑬,⑭; (3)-④
- 주어가 출현한 경우: (1)-⑧,⑪; (2)-⑩

(4)는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어의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가 명시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에는 생략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단락 내

의 앞에 언급된 경우는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었으나 단락 내에서 처음인 경우와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Ⅲ.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125개였다. 이 중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21개(16.8%)였으며, 나타난 경우는 104개(83.2%)였다. 텍스트에서 처음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생략되는 경우가 16.8%에 이른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¹⁰⁾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다음은 주어가 생략된 예들로서,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없는 경우들이다(밑줄은 서술어임).

(5) 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나. 53년 봄이니까 아직 동란 중이었다.

다. 손으로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

(5가)의 생략된 주어는 ‘병원 문을 닫을 날’(혹은 ‘내가 이 노릇을 할 날’)로서 이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생략은 수사적 효과를 위한

10) ‘수난시대’에서도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92개)에는 주어가 나타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68개, 73.9%)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생략된 빈도(24개, 26.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것인지에 관한 궁금증을 고조시킴으로써 긴장감을 자아내는 것이다. (5나)의 생략된 주어는 작중 인물인 ‘나’가 ‘서울에 올라와 개업할 자리를 물색할 때’로서, ‘당시’ 또는 ‘그 때’ 정도일 것이나 생략되었다.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언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5다)의 주어의 지시체는 화자이거나 다른 사람일 것이나 그것이 누구인가가 특별한 의의를 갖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 중 (5)에서처럼 텍스트의 앞에 제시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나오지 않은 예는 21개로서, (5가)에서처럼 수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1개, (5나)처럼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8개, (5다)처럼 불특정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는 12개였다. (5가)와 같은 수사적인 현상을 제외하면, 텍스트의 앞에 제시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주어가 화자이거나, 주어가 누구인가가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2. 주어가 출현한 경우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지시체를 가리키는 주어가 외현적으로 출현할 때에는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 (6) 가. …… 황 씨가 예상한 대로 환자는 없었다.
 나. 가방 속에 이미 조산(助産)에 필요한 기구가 챙겨져 있었다.
 다. 잘생긴 애기의 둘 사진도 있고
 라. 업둥이가 들어온 지 한 달쯤 있다 혼자 피란 나갔던 딸까지 돌아왔다.

(6가)의 주어는 ‘는’이 결합한 형식이며, (6나)의 주어는 ‘이’가 결합한 형식이고, (6다)의 주어는 ‘는’ 이외의 보조사가 결합한 형식이며, (6라)는 조사가 없는 형식이다. 이를 각각 ‘NP-는’, ‘NP-이’, ‘NP-X’,¹¹⁾ ‘NP’로 표시하기로 한다.

다음은 주어가 텍스트에서 처음 출현한 지시체일 때의 실현 양상을 표로 보인 것이다.

(7)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의 실현양상

형식	NP-는	NP-이	NP-X	NP	합계
출현수	48	40	15	1	104
백분율	46.2%	38.5%	14.4%	1.0%	100%

(7)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 주어는 ‘는’ 결합 형식과 ‘이’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사 없이 나타나는 예는 거의 없음을 보여 준다.¹²⁾ (7)에서 보듯이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는 ‘는’ 결합 형식이 ‘이’ 결합 형식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이거나, ‘수난이대’에서는 ‘이’ 결합 형식(37개, 54.4%)이 ‘는’ 결합형식(18개, 26.5%)보다 많다. 이는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의 ‘는’ 결합 형식과 ‘이’ 결합 형식의 빈도가 문체적 특성이나 텍스트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텍스트에 따른 상대적 빈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 처음 출현하는 지시체가 ‘는’ 결합 형식으로, 즉 화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때로

11) 단체를 뜻하는 말 뒤에 ‘에서’가 올 때(1개)에도 이 경우에 포함시켰다.

12) (6라)에서 ‘한 달쯤’을 주어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수난이대’에서도 부사어로 간주할 수 있는 예(2회)를 제외하면 조사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는 ‘이’ 결합형식보다)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담화상에서는 독자가 알 수 있다고 가정하는 지시체를 화제로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¹³⁾ 다음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지시체를 가리키는 주어가 ‘NP-는’으로 실현된 예들이다.

- (8) 가. 서울은 단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 그때 나는 …… 단신 서울로 올라와 ……
- (9) 가. 개업할 만한 자리는 시내 중심가에도 수두룩했다.
 나. 공교롭게도 내가 처음 받은 환자는 집주인 황 씨의 딸이었다.
 다. 난리통에 아내는 식량 구하러 친정에 갔다 오다 폭사하고
 라. 문제는 늘 눈감고도 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8가,나)는 각각 고유명사와 대명사가 주어인 예들이다. ‘서울’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지명이며, ‘나’는 작중 인물인 동시에 서사자로서 독자가 알 수 있는 사람이다. (9가,나)의 주어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한정성이 높아진 명사구로서, 세상사적 지식을 통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경우들이다. (9다,라)의 주어들은 수식을 받지 않고 있으나, (9다)는 맥락을 통해 ‘황씨의 아내’임을 알 수 있고, (9라)의 ‘문제’는 총칭적 의미이므로 한정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주어가 텍스트에서 처음 출현하는 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8),(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상사적 지식이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13) Lambrecht(1994:164)에서는 화제로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활성화된 지시체>접근가능한 지시체>사용되지 않은 지시체>완전히 새롭지만 닷 내린 지시체>완전히 새롭고 닷 내리지 않은 지시체’의 위계를 제시하고 이를 ‘화제 용인가능성 척도’(Topic Acceptability Scale)라고 부른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동주(2012: 33-34)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시체는, 텍스트에 도입하는 과정 없이 화제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라고 하겠다.

세상사적 지식이나 맥락을 통해 알 수 없는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
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P-는’ 형식의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
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설과 같은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수사적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앞의 (1)④를 옮긴 것이다.

(1)④ 창가에 놓인 우단의자는 부드러운 햇빛이다.

(1)④는 ‘창가에 놓인 우단의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화제로 제시한 표현
으로, 대화 중이라면 ‘우단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되기
어렵다.¹⁴⁾ 이와 관련하여 Chafe(1994: 228)에서는 아무런 소개 없이 확인
가능한 지시체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독자는 이전 경험으로부터 끊김 없
이 이어진,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사건으로 흐르는 경험을 하는 듯한 인상
을 받게 된다고 하고 이를 ‘사건의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것’(begins in
medias res)이라고 한 바 있다.

확인가능하지 않은 지시체가 텍스트에 도입(소개)되는 상황이 아닐 때
‘NP-이’ 형식의 주어로 나타나는 것도 소설과 같은 텍스트에서만 볼 수
있는 수사적 현상이다. 다음은 ‘수난이대’의 첫 부분을 옮긴 것이다.

(10)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

독자는 ‘진수가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으나, ‘NP-이’ 형식의 주어로 제

14) 대화 중이라면, ‘창가에 우단의자가 있어. 그 의자는 부드러운 햇빛이야’에서처럼 ‘우
단의자’를 텍스트에 도입하는 표현이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시되었다. 만일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10)에서처럼 시작하기 어려우며, ‘진수’가 누구인지 밝히는 표현이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10) 역시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도입되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1)④와 유사하나, (1)④보다는 ‘사건의 가운데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이 약한데, 이는 주어가 ‘NP-이’ 형식인 표현이 사건제시문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겠다.¹⁵⁾

IV.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경우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는 경우는¹⁶⁾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나, 단락

15) 사건제시문에 대해서는 최동주(2012: 38)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동일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물론,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생략된 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다음은 각각의 예를 보인 것으로, ①의 ‘그만하면’의 생략된 주어는 앞 문장에 제시된 ‘나의 경력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②의 ‘동란 중이었다’의 생략된 주어는 ‘당시는’으로 볼 수 있으나, 앞 문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① 나는 동란 전에 여의전(女醫專)을 나왔고, 동란 중엔 …… 선배 언니네 병원에 취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처럼 전문의 제도가 확립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만 하면 ……

② 53년 봄이니까 아직 동란 중이었다.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141개였다. 이 중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21개(14.9%)밖에 없었으며, 나타난 경우는 120개(85.1%)였다.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가 있더라도 생략되지 않고 나타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현상은, 담화 화제가¹⁸⁾ 대체로 단락의 경계에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나,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주어가 생략된 예들을 보인 것이다.

- (11) 가. 그러나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단지 사흘밖에.
 나. 그러나 그런 일을 한 번 치르고 나면 한바탕 몸살 비슷한 증세를 앓는 허약한 구석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
- (12) 가. 황 영감 말투에 의하면 오로지 만득이를 망신 주려고 그 결혼식을 꾸민 것 같았다. 아무튼 처음 구경하는 진풍경이었다. 모두 킬킬대고 수군댔다.
 나. 그리고도 미진한지 부정 탄 것처럼 당장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은 얼굴을 했다.

(11)은 밑줄 친 서술어의 주어가 나오지 않은 예들인데, 생략된 주어의

17) ‘수난시대’에서도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81개)에는 주어가 나타나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49개, 60.5%)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생략된 빈도(32개, 39.5%)가 ‘그 가을의 사흘 동안’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18) 문장(혹은 발화)의 화제와 별도로 ‘담화 화제’를 설정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Chafe (1994) 참조.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다. (11가)는 앞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바 있는 표현으로 생략된 주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날’이며, (11나)의 생략된 주어는 서사자인 ‘나’이다.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전형적이며, 드물긴 하지만, (11)에서 처럼 맥락상 분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2)는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나,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주어가 생략된 예로 일단 간주하기는 하였으나, 재고의 여지가 있는 예들이다. (12가)는 생략된 주어를 ‘동네 사람들’로 보았으나, ‘모두’를 주어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12나)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대화 다음에 나오는 예로서 단락의 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¹⁹⁾

2) 주어가 출현한 경우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의 외현적 주어의 형식별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이다.

(13)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에서 처음 출현할 때의 주어의 실현 양상

형식	NP-는	NP-이	NP-X	NP	합계
출현수	81	31	8		120
백분율	67.5%	25.8%	6.7%		100%

19) 본고에서는 형식적인 면을 중시하여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위치는 모두 단락의 시작으로 간주하였다.

(13)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지만 단락 내의 앞에는 언급된 바 없을 때 주어의 실현 양상이 텍스트에서 처음 출현할 때(앞의 (7) 참조)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NP-는’이 47%에 미치지 못했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67.5%에 달하는 것이다.²⁰⁾ ‘NP-X’가 (7)에서보다 빈도가 낮은 것과 ‘NP’의 예가 보이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²¹⁾

다음은 ‘NP-는’의 예를 보인 것이다. ‘NP-이’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좀 더 길게 인용하기로 한다.

(14) 가. …… 안절부절 못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두서없이 지껄여대고 있었다.

“선생님, 좀 서둘러주세요야겠구먼요. …… 저도 살아 있지 않습니
다요.”

그는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나는 경황없이 나
한테 매달리면서도, 똥 묻은 동아줄에 매달린 것처럼 산부인과라
는 걸 꺼리고 있는 황 씨의 우스꽝스러운 결벽성을 실컷 우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뱃속이 근질근질 했다.

나. 지금부터 두 달 전 만득이는 만삭의 여자를 거느리고 집으로 들
어왔다. 황 영감은 반기지도 내쫓지도 않았고 딱 한 가지 예식
을 올렸느냐고 물어봤다.

“아버지, 제가 아무리 불효자식이기로서니 …… 네, 서럽구 말
구요.”

20) 이러한 양상은 ‘수난시대’(‘NP-는’: 30개, 61.2%, ‘NP-이’: 15개, 30.6%)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21) ‘는’ 이외의 보조사의 출현이 정보구조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는 확실치 않다. 조사 없이 ‘NP’만으로 실현된 것은 구어에서라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최동주 2012: 39, 50 참조), 문어 텍스트에서는,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빈도가 매우 낮다.

만득이는 이렇게 청승과 너스레를 함께 떨었다.

(14가)는 주어가 대명사로 실현된 예이며, (14나)는 일반 명사구로 실현된 예이다.²²⁾ (14가)의 ‘는’은 ‘이’로 바꾸어 표현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14가)를 ‘그가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횡설수설했다’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횡설수설’하는 상황이 새로운 사건의 전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4가)의 경우 인용문의 앞에도 ‘…… 두서없이 지껄여대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횡설수설’하는 상황이 새로운 사건의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바꾸기 어려움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주어가 ‘NP-는’ 형식인 문장은 그 앞에 나오는 부분과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하위 상황들에 대한 서술일 때 쓰이며, 주어가 ‘NP-이’ 형식인 문장은 새로운 사건의 전개일 때 쓰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14나)의 경우는 ‘는’을 ‘이’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에도 ‘이’를 사용하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다는 느낌이 강한 것은 (14가)와 마찬가지로이다.

다음은 ‘NP-이’의 예들로서, 앞의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15) 가. 계약이 끝나고 구전까지 지불하고 나서야 황 씨는 무슨 병 고치는 병원을 할 거냐고 물었다. 이제 완전히 내 대변인이 된 것처럼 구는 데 익숙해진 영감이 먼저 나섰다.

“훗뚜루 다 보신다고 안 했남. 선상님이 그러셨죠 잉?”

나. 그 딸이 언제 돌아왔는지, 오밤중에 황 씨가 왕진을 청하러 왔다.

22) 주어가 3인칭인 경우 (14가)에서처럼 대명사로 실현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14나)에서처럼 일반 명사구로 실현되거나, 고유명사가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국어의 특징적인 모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작가에 따라서는 ‘그나’ ‘그녀’ 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일한 작품 내에서도 일반 명사구와 대명사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동화에서는 대명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3인칭 대명사의 출현은 문체적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 씨는 몹시 서둘고 있었고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 못 잡아
 일어났다 앉았다 남의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
 하면서, ……

(15가)와 (15나)의 ‘이/가’는 모두 ‘은/는’으로 바꾸기 어려운데, 이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사건의 전개와 관계가 있다. (15가)에서 ‘황 씨가 ‘무슨 병 고치는 병원을 할 거냐’고 물은 것은 서사자인 ‘나’에게였을 것이나, ‘완전히 내 대변인이 된 것처럼 구는 데 익숙해진 영감이 먼저’ 나선 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며, (15나)에서 ‘오밤중에 황 씨가 왕진을 청하러’ 온 것도 뜻밖의 일로서, 새로운 사건인 것이다.

(14)와 (15)를 통하여 주어가 ‘NP-는’ 형식인 발화는 그 앞에 나오는 부분과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하위 상황들에 대한 서술일 때 쓰이며, 주어가 ‘NP-이’ 형식인 발화는 새로운 사건의 전개일 때 쓰임을 살펴보았다. 이는 각주 8)에 언급한 바 있듯이, 주어에 ‘는’이 결합한 경우 그 지시체가 화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가 ‘NP-는’의 형식인 문장은 화제-는 평 구조로서 (독자가 알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화제에 대해 설명할 때 쓰이며, 주어가 ‘NP-이’의 형식인 문장은 화제가 없는 표현으로, 사건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최동주 2012 : 38),²³⁾ 주어가 ‘NP-이’ 형식인 발화가 새로운 사건의 전개일 때 쓰이고, 주어가 ‘NP-는’ 형식인 발화는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23) 주어가 ‘NP-이’ 형식인 문장은 이밖에도 지시체를 도입하거나(예: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예: 내일은 누가 오니? 철수가 와요.)에도 쓰인다.

2.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된 바 있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Ⅲ장)와, ‘텍스트 앞에 언급된 적이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Ⅳ-1)와 모두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의 앞에 언급된 경우의 주어의 실현양상을 보인 것이다.

(16)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의 앞에 언급되었을 때의 실현 양상

	생략		출현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비화제	54	16.7%	62	45.6%	116	25.2%
		46.6%		53.4%		100.0%
화제	270	83.3%	74	54.4%	344	74.8%
		78.5%		21.5%		100.0%
합계	324	100.0%	136	100.0%	460	100.0%
		70.4%		29.6%		100.0%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가 460개였으며, 이 중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324개로 70.4%에 달했으나, 주어가 나오는 경우는 136개로 29.6%에 그쳤다.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는 빈도가 앞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²⁴⁾ 한편 (16)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로 제시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4) 이 역시 ‘수난이대’(생략: 225개, 73.1%, 출현: 83개, 26.9%)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된 바 있는 경우로서, 주어가 생략된 예들이다(밑줄은 서술어임).

(17) 가. 황 영감 말투에 의하면 오로지 만득이를 망신 주려고 그 결혼식을 꾸민 것 같았다. 아무튼 처음 구경하는 진풍경이었다.

나. 나는 그 돈을 그가 내려간 뒤에 세어보았다. 규정상의 정상분만비의 세 곱은 되는 액수였다.

(18) 가. 그 일대의 공상은 어딘지 모르게 순수하지 못해 보였다. 야릇한 화냥기 같은 걸로 오염돼 있었다.

나. 나는 그 돈을 그가 내려간 뒤에 세어보았다. 규정상의 정상분만비의 세 곱은 되는 액수였다. 아마 입 다무는 샅까지 포함돼 있음직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전화위복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질투를 느꼈다.

(17가)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그 결혼식’일 것이며, (17나)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그 돈’일 것이나, 모두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는 54개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경우의 16.7%에 지나지 않으나,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가 아닌 경우(116개)의 46.6%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⁵⁾

(18)은 (17)과 달리 앞에 화제로 제시된 예들로서, 이러한 예는 270개로, 주어가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324개 중 83.3%이

25) ‘수난시대’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생략되는 빈도가 다소 낮았다(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의 8%,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가 아닌 경우의 41.9%). 앞의 언급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지면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생략된 주어가 바로 앞에 언급된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인 경우(344개)의 78.5%에 달한다. (18가)는 바로 앞 문장에서 화제로 제시되었으나, (18나)는 화제로 제시된 문장과 의 사이에 2개의 문장이 끼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7나)에서 살펴본 왔듯이 (18나)의 중간에 끼여 있는 ‘규정상의 정상분만비의 세 곱은 되는 액수였다.’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여기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를 화제로 간주한다면 (18나)의 화제가 ‘나’에서 ‘그 돈’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나, 끝 문장에서 주어 ‘나는’이 생략된 것이다. 화제가 바뀌더라도 (18나)에서처럼 맥락상 해석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주어의 생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²⁶⁾

2) 주어가 출현한 경우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된 바 있지만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예들이다.

(19) 가. 안방엔 **고쟁이** 바람의 처녀가 마구 으깨진 입술을 더욱 모질게 악물고 …… 언제 파수(破水)했는지 고쟁이는 이미 평하게 젖어 있었다.

나. 나는 **증오**로써 그 일을 했다. 그 일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선 […… 원치 않은] 생명에 대한 증오가 잠시도 나를 떠나 있으면 안 되었다.

(20) 가. **아버지는** 곧 돌아가시려고 했다. …… 나는 아버지를 만류했다.

26) 다음 예는 앞에 ‘딸은’이라는 새 화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바뀐 화제가 외현적으로 나타났지만 주어가 생략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젖까지 먹일 순 없었지만, 딸은 새로 생긴 남동생을 극진히 양육해서 …… 마침 전실 자식 없는 후취 자리가 나서서 부랴부랴 (황 씨) 시집 보내 아들딸 낳고 잘 사니 …… ”

아버지는 나의 만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으니 애쓰지 말라고 하셨다.

나. 그러나 **태아**는 두부만 겨우 만출(娩出)되고 나서 일단 정지했다. 놀랍게도 그 경황 중에 **태아**가 눈을 반짝 떴다.

(19가,나)의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고쟁이’와 ‘증오’는 단락의 앞에 언급되었으나, 화제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반면 (20가,나)의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아버지’와 ‘태아’는 단락의 앞 부분에 화제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되었지만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예 136개 중, (19)에서처럼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가 아닌 경우는 62개로 45.6%였으며(언급된 바가 화제가 아닌 경우 116개 중 53.4%), (20)에서처럼 화제인 경우는 74개로 54.4%였다(언급된 바가 화제인 경우 344개 중 21.5%).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와는 달리, 앞에서 화제로 제시된 경우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이는 주어의 지시체가 앞에서 화제로 제시되었을 때 생략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각각의 경우 주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인 것이다.

(21)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의 앞에 언급되었을 때의 실현 양상

구분		NP-는	NP-이	NP-X	합계
화제가 아닌 경우	출현수	43	11	8	62
	백분율	69.4%	17.7%	12.9%	100%
화제인 경우	출현수	60	14		74
	백분율	81.1%	18.9%		100%

(21)은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서 화제로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에 상관없이 ‘NP-는’으로 실현되는 빈도가 ‘NP-이’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 준다.²⁷⁾ 주어가 ‘NP-는’의 형식이거나 생략된 경우는 단락 내의 앞에서 이미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16),(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경우 주어가 생략된 예는 270개이며, ‘NP-는’으로 실현된 예는 60개로서, 81.8%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에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인 경우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2%에 달하는, 생략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²⁸⁾

화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규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생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 (22) ①창가에 놓인 우단의자는 부드러운 잣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우단 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두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색이었다. ②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삼십 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잣빛으로 바라는 일밖에 없다. ③그건 처음부터 거기 있었고 처음부터 쓸모가 없었다.

①은 ‘우단의자’의 색깔에 관한 설명이며, ②는 ‘그 의자의 쓸모 없음’에 관한 설명이고, ③은 바로 앞의 문장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강조하는 듯한

27) ‘수난시대’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었으나 화제가 아닌 경우 주어가 ‘NP-이’ 형식으로 실현되는 빈도(56%)가 ‘NP-는’(40%)으로 실현되는 빈도보다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 ‘NP-는’의 빈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8) 이러한 경우 ‘NP-는’으로 실현되는 빈도는 ‘수난시대’에서도 18.5%로 거의 유사하다.

느낌을 준다.²⁹⁾ ③의 ‘그건’은 생략해도 어색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화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한편 ②의 ‘그 의자는’은 생략되기 어려운데, 동일한 지시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더라도 다른 측면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동주(2012: 54)에서는 “활성화된 화제라 하더라도 대조적인 상황인 경우나, 뒤에 언급되는 바가 일반적 기대에서 벗어난 내용인 경우에는 외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22)②에 서처럼 동일한 지시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더라도 다른 측면에 관한 설명인 경우에는 화제가 다시 외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①의 ‘창가에 놓인 우단의자는’과 ②의 ‘그 의자는’, ③의 ‘그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에서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로 제시되면서 형태가 단순해지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앞에서 이미 화제로 제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NP-이’의 형식으로 실현된 예를 보인 것이다.

(23) 가. 그는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 나는 옷을 다 입고 가운까지 걸치고 손을 소독했다. 가방 속에 이미 조산(助産)에 필요한 기구가 챙겨져 있었다. 황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 들고 계단을 곤두박질쳐 내렸다.

나. 그러나 태아는 두부만 겨우 만출(娩出)되고 나서 일단 정지했다. 놀랍게도 그 경황 중에 태아가 눈을 반짝 떴다. 이미 태아가 아니라 아기였다.

(23)과 같은 예는 14개에 불과하다. (23가)의 ‘황 씨가’와 (23나)의 ‘태아

29) 앞의 내용을 반복하였고, 대구법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가'를 각각 '황 씨는'과 '태이는'으로 바꾸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점에 서, 이러한 위치에서는 'NP-이'의 형식과 'NP-는'의 형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3)에서는 '이/가'가 좀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23가)의 경우에는 앞에 대명사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황 씨'로 지칭한 점이 (22)에서 살펴본 형태 단순화 현상과 어긋나는 점에서 그러하며, (23나)에서는 부사어 '놀랍게도'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3가,나) 모두 주어가 'NP-이' 형식인 문장의 위치에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듯한 느낌이 강한데, 이는 앞의 (15)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주어가 'NP-이'의 형식인 문장은 사건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 데 기인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박완서의 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을 주자료로 하여 주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논의된 바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1.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어가 화자 또는 불특정한 사람이거나, 주어를 밝히는 것이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표현할 때 가능하며, 수사적 목적에 의한 경우도 있다.
2.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결합 형식과 '는' 결합 형식이 모두 상당한 빈도로 쓰이는데, 이처럼 처음

출현하는 지시체인 경우에도 ‘는’ 결합 형식이 쓰이는 것은, 세상사적 지식이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시체는, 이를 텍스트에 도입(혹은 소개)하는 과정 없이 바로 화제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소설 텍스트에서는 주어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채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

3.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있더라도 생략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담화 화제가 대체로 단락의 경계에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의 주어의 실현 양상은 ‘NP-는’의 형식이 현저하게 많다는 점에서 텍스트에서 처음 출현할 때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4.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는 빈도가 앞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었을 때 생략이 두드러지며,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가 아니거나, 다른 화제가 중간에 끼여 있는 경우에도 맥락상 해석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
5.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NP-는’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규칙적인 것은 아니어서, 생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조적인 상황이거나, 이어지는 내용이 기대 밖의 상황일 때, 그리고 동일한 지시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더라도 다른 측면에 관한 설명인 경우 주어가 ‘NP-는’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뒤에 오는 형식은 형태적으로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
6.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경우에도 주어가 ‘NP-이’의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

이 전개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주어에 ‘이’가 결합한 표현이 사
건제시문의 기능을 갖는 데 기인한다.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라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비는 문장 문법으로는 다를 수 없었
던 현상이다. 다양한 장르의 문어 텍스트와 구어에 이르기까지 담화를 고
려하는 분석을 확대적용함으로써 국어의 사용 양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2011.
- 목정수, 『한국어문법론』, 월인, 2003.
-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 집문당, 2008.
- 박승윤, 『담화의 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1, 1-15, 한국언어학회, 1986.
- 박철우,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2003.
- 성기철,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188, 1-25, 한글학회, 1985.
- 유현경·양수향·안예리, 『영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가’와 ‘는’의 교수방안 연구 -한영 병렬말뭉치를 이용하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2007, pp.272-298.
- 이정민,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 『국어학』 22, 국어학회, 1992, pp.397-424.
- 이필영, 『조사 ‘가/이’의 의미 분석』,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 pp.417-431.
- 임홍빈,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국어연구회, 1972.
- _____,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분석-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 전영철,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43, 215-237, 한국언어학회, 2005.
- 정희원, 『한국어 대조화제와 화제, 초점: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채 원, 『화제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4, 205-2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 _____,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93-111, 국어학회, 1976.
- _____, 『화제와 총칭성, 특정성, 한정성』, 『목천유창균박사 환갑기념논문집』, 1984, pp.743-755.
- 최동주,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인문연구』 65, 25-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한정환, 『내포문에서의 화제화 제약과 정보구조』, 『언어』 27-3, 한국언어학회, 2002, pp.535-556.
- Brown, G. and G. Yule(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le, P. ed., *Radical Pragmatics*, Academic Press, 1981.

Halliday, M.A.K. and R.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gman, 1976.

Lambrecht, K.,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Levinson, S.,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rince, E. F.,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 Cole ed.(1981) *Radical Pragmatics*, 1981, pp.223-255.

Reinhart, T.,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1981, pp.53-94.

Schiffrin, D., *Approaches to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s, 1994.

Stubbs, M., *Discourse Analysis - 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Basil Blackwell, 1983.

Vallduví, The Informational compon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form of subjects in Korean written text

Kim, Su-Jeong · Choi, Dong-Ju

In Korean written text, subjects can take the form of 'NP+i/ga', 'NP+in/nin', 'NP+X(other particle)', 'NP', or can be omitted(\emptyset).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ich form is selected in what situ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referent of a subject has not been introduced to the text, the subject can take either the form of 'NP+i/ga' or of 'NP+in/nin'. The reason why 'NP+in/nin', which is typically used when the referent of the subject is a topic, can be used is that the referent identified through context or world-knowledge can be presented as topic without the process of introducing to text. Second, the subject is often omitted when its referent is already introduced to text, but tends to appear if its referent is not mentioned before in the same paragraph. In this case, the subject typically takes the form of 'NP+in/nin'. Third, the subject is omitted when its referent is already presented as topic in the same paragraph, but the subject can appear in case of contrastive meaning, emphasis, or expressing other side of referent. In this case the form of the subject which comes behind tends to be shortened. Finally, the subject can take the form of 'NP+i/ga', which means its referent is not a topic, whether its referent is already mentioned in the same paragraph or not, and in this case the sentence expresses the situation being a new event.

Key Word : discourse analysis, subject, topic, 'i/ga', 'in/nin', information structure, omission

김수정(제1저자)

소속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 010-3227-2847

전자우편 : alsemf38@nate.com

최동주(교신저자)

소속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 053-810-2125 / 010-9812-2125

전자우편 : djchoi@yu.ac.kr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